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9〉 재상 류성룡과 경북 안동

임진왜란때 빛나던 리더십
무능·부패 정치권에 ‘울림’

조선 유교 건축의 백미 병산서원
류성룡 위패·책 3000여권 보관



류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



하회마을에 있는 류성룡 종택 충효당.



류성룡 같은 재상 어디 없는가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병산서원은 조선의 명재상 서애 류성룡의 학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사진은 병산서원 내에 자리한 만대루.

‘성완종 리스트’로 온 나라가 여전히 시끄럽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한사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펼쳐 댄다. 야당은 재보선 참패로 당내 내홍이 만만치 않다. 지도부 거취를 둘러싸고 막말이 오가고 급기야 자중지란에 빠졌다.

2015년 오늘의 정치권 모습이다. 그들의 눈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 와중에 대외 정세마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 관계가 본격화되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신월맹’을 구축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4강의 대립 전선이 분명해졌다.

무엇인가 기시감이 든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보자.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 1592년과 1597년이다. 그로부터 30년쯤 지나 청나라에 의해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 발발했다.

그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은 지금처럼 녹록치 않았다. 대외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집권층은 당과 싸움으로 날을 샀다. 지방 관리는 배를 불리기 위해 수탈을 서슴지 않았고 민초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가 떠올라지는 요즘이다. 고위층의 부패와 정쟁, 그리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날로 팍팍해지는 민생...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다.

만인의 재상 류성룡과 그의 ‘징비록(懲毖錄)’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임란의 현장에서 빛나던 그의 리더십은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오늘의 정치권과 명확히 비교된다. 원래 ‘징비’라는 말은 ‘시경’의 소비편에 나온다. “予其懲而茲後患(여기징이비후환)-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는 서애(西厓)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한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다. 이곳에는 류성룡의 문집을 비롯해 3000여 종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강 저편에는 병풍처럼 둘러친 산이 자리한다. 봄꽃이 주위의 풍광과 어울려 비장하면서도 수수한미를 발한다. 솟을대문인 복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만대루’(학승공간)가 나온다.

만대루의 ‘만대’는 당나라 두보의 시 ‘백제성루’의 “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다(翠屏宜晚對)”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이제 보니 그 뜻을 이해할 만하다. 병산의 절벽과 강물의 풍광이 만대루 기둥 사이로 시나브로 흘러드니 말이



충효당 기념관에는 징비록 사본과 다양한 유물이 있다.

다. 흑역 병산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어스름한 서원을 비치면 이곳은 한 폭의 동양화로 변할 것 같다.

“병산서원 모태는 풍악서당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풍산현에 자리한 이유로 풍악서당이라고 불리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큰길가에 위치해 있어 학문을 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 류성룡 선생이 이곳 병산 인근으로 옮겼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요.”

송갑연 해설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송 해설사는 “서애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이 존덕사를 세워 강학과 제향 기능이 갖춰지면서 서당에서 서원으로 격상되었다”고 말한다.

병산서원과 가까운 하회마을에는 류성룡의 종택 충효당이 있다. 이곳은 서애 사후에 선생의 학덕과 정령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관직에서 파직을 당하고 낙향했을 당시의 집은 지극히 단촐했다고 한다. 정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서애의 삶이 검박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선생의 말손자 류원지와 그의 아들 류의하가 지었습니다. 당호를 충효당이라고 지은 것은 서애 선생이 임종할 당시 후손들에게 내린 유언 때문이지요.”

서애의 14대손 류승호 씨의 말이다. 충효당 기념관에는 선생의 초상화, 징비록 사본, 영의정 임직을 받을 당시의 교지 등 여러 유물이 보관돼 있다.

2010년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 엘리베이터 여왕 2세를 비롯,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봄이면 서애의 생을 다룬 뮤지컬이 공연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류성룡은 안동이 낳은 명재상이자 애국애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에 가보면 류성룡의 충심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종택과 떨어진 외진 산자락 아래에서 서애는 이렇게 썼다. “지난 일을 뒤엎고 앞으로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당리당락과 정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오늘의 ‘고관대작들’은 한번쯤 징비의 뜻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곧 시작될 총리 선인, 서애 류성룡 같은 재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안동=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류중영·윤룡·성룡父子 배출...명문 풍산 류씨 집성촌 발돋움

하회마을

하회별신굿놀이(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유명한 하회마을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있다. 낙동강 물줄기가 남쪽으로 흘러가다 화산을 만나 반원의 형아리처럼 휘돌아가는 지점에 자리한다. 흑자는 물과 땅이 서로 얽혀 S자 형상의 태극을 닮았다고도 한다.

부용대는 하회마을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다. 부용(芙蓉)이 연꽃을 뜻하는 말이라면, 부용대는 연꽃을 내려다보는 대다. 아닌 게 아니라 부용대에 올라 바라보는 하회마을은

한 폭의 연꽃을 닮았다. 물 위에 함초롬히 떠 있는 한 송이의 연꽃. 찰랑이는 물살에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한 풍경이 압권이다.

하회마을이 명문가문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발돋움한 것은 입암 류중영(1515~1573)과 그의 두 아들 겸암 류윤룡과 서애 류성룡이 배출되면서부터다. 입암은 1540년(중종35)에 과거에 급제해 좌부승지, 황해도관찰사, 승지 등을 역임했다. 겸암은 퇴계의 수제자로 정계보다는 도학을 강구한 처사로 알려졌다. 익히 아는 대로 서애는 임란을 극복한 재상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